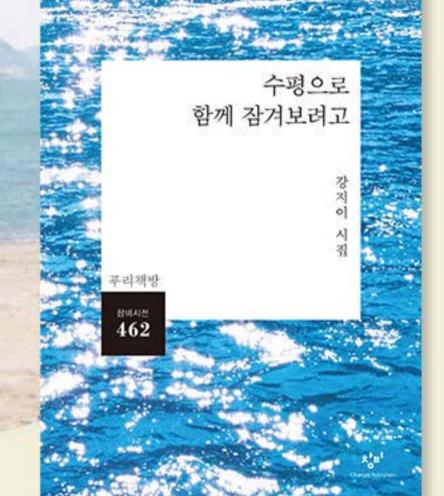
창비시선 462

수평으로 함께 잡겨보려고



파란 바다의 차가움과 윤슬의 따뜻함이 한 장 한 장 살아있는 시집